| 금융산업위원회 |

금융산업위, 노동계 반대로 합의 무산

–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에는 공감대
– 노동계 반대로 '임금 결정제도' 쟁점 최종 조율에 어려움

'금융산업위원회(위원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하 금융산업위)'는 2월 17일(월) 제2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종료를 최종 결정했다.

금융산업위는 그간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지속해왔다. 노사가 제안한 개선 요구사항*을 토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금융산업 공동 실태조사'('19. 10. 22 발표)를 바탕으로 작년 12월 '금융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하여 노사 간 의견 조율을 시도해왔다.

*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과당경쟁 근절을 통한 성과문화 개선 (경영계) 임금체계 개편과 산별교섭 효율화

노동시간 단축, 성과문화 개선, 산별교섭 효율화 등에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임금결정방식 개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을 비롯해 위원회 내부에서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됐지만, 노동계를 대표하여 참석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직무기반 임금 비중의 확대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공익위원 권고문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1. 28. 회의에서 노사의 자율적 협력을 강조하는 합의문의 취지를 감안할 때, 권고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금융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의 유지·창출을 위한 합의문 초안 주요 내용

1. **(노동시간 단축)** 기관 특성을 반영한 표준 출퇴근시간 도입, 고용유지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 마련,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 도입방안 마련,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취지를 살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정착을 위한 노사 협력 등
2. **(성과문화 개선)** 2018. 12월 합의한 '과당경쟁 방지 금융노사 TF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 촉구, 과도한 단기성과주의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기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변화 등
3. **(임금결정방식 개선)**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임금결정방식의 개선 : 임금인상은 하후상박, 점진적 연공성 완화 및 직무기반 임금비중 확대 방향
4. **(산별교섭 효율화)** 의제선정위원회 활성화, 산별교섭의 효율성 및 체제 강화를 위한 합리적 교섭 방안 마련, 이중교섭과 쟁의 등에 관한 세부 방안 마련 등
5. **(교육·훈련 강화)** 금융 산업 내 근로자의 고용안정, 생산성 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방안 마련
6. **(노사정 협의채널 운영)** '노사정 협의채널'을 운영을 통해 금융 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협의체제 강화